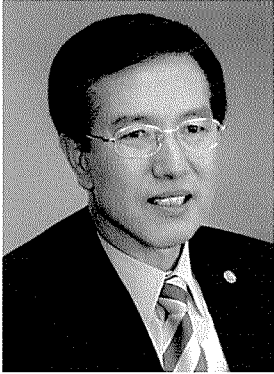


격려사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양묘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한국양묘협회지의 제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촌 인력난 등 어려운 생산여건 하에서도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여 산림자원 조성에 노력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한국양묘협회에 종·묘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크나큰 성과도 있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의 유례없는 폭설로 간이온실이 파손되는 등 조림용 묘목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황폐한 산림 복구를 위하여 집중적인 조림으로 성공하였으나 심어만 놓고 제때에 가꾸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숲을 「숲다운 숲」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숲가꾸기 정책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벌기령이 지난 리기다소나무림을 벌채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생태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량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갱신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 경영모델링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리기다 갱신·조림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해나감으로써 조림사업 몰량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심은 나무가 50년, 100년 동안 건설하고 우량하게 자라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 문제가 우량한 종자를 확보하여 품질 좋은 묘목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림용 종자 선택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 동안 종자채취 유통내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종자 생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종자가 유통 파종되는 등 종·묘 관리에 부실한 점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용 종자유통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2006년부터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혁신적으로 정립되어 회원 여러분들께서 생산한 묘목의 종자 산지가 투명해지고 묘목생산이 실명제로 운영되는 등 종자와 묘목의 유통·관리 이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묘목생산자 여러분들이 검증된 종자확보와 우량묘목 생산에 대한 열의와 긍지를 가지고 정부의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은 물론 묘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묘목의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묘목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포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양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량 포지보유자를 우선하여 간이온실 및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과 양묘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묘목생산 비용증가로 이어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업방법 개선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한국양묘협회의 오랜 숙원인 종·묘 판매전시장 준공을 바탕으로 한국양묘협회가 크게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또한 양묘협회지가 회원 상호간의 기술 교류는 물론 양묘산업의 정보·기술지로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양묘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산림청장 조연환